

지역사회간호학회 40년사

이 꽃 매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Forty Years' Development of the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Yi, Ggodm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s,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KACHN]. **Methods:**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show changes that KACHN has experienced. **Results:** In the 1970s it made the annual meeting regular and began research presentation. In the 1980s regular symposiums were activated and as a result the academy could publish its own journal from 1989. In the 1990s the boards were selected from locals by turns and lots of papers and teaching materials were produced from collaborate researches of the members. In the 2000s, the journal was sele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Korea and the academy began regular Korea-Japan Community Health Nursing Conference and hosted the 5th ICCHNR. **Conclusion:** In spite of great development, KACHN has new challenges. The number of members has increased so much that there are a few academies specialized in some field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They have made the members' interest and loyalty weaker than during the pioneer days. KACHN should take the new role as a lead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as well as the old role as a leader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Key Words: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es, History, Korea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회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The National Institutue of Korean Language, 2008). 세계 최초의 학회는 이탈리아

에서 시작되었다. 1560년 나폴리에서 'Academia Secretorum Natura'가 결성되었고, 1603년 로마에서는 'Academia dei Lincei'가 결성되었다. 영국에서는 찰스 2세가 화학 탐구의 모든 수단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1662년 런던 왕립학술원(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Improving Natural Knowledge)을 설립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때인 1665년 파리에서 '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ociences)'가 설립되었고, 독일에서는 1652년 과학의사회(Gesellschaft Natur-

주요어: 지역사회간호학, 학회, 역사, 한국

Corresponding author: Yi, Ggodm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s,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220-702, Korea.
Tel: +427778842023, Fax: +82-33-738-7620, E-mail: yime@sj.ac.kr

-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지역사회간호학회 40년사" 연구과제로써 이루어졌음.

투고일: 2012년 2월 13일 / 수정일: 2012년 3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6일

forschender Aerzte)가 설립되었다(The Earliest Academies, 1999).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제국기에 학회 설립이 시작되어 1906년에 조직된 서우학회 등이 알려져 있다. 서우학회는 1906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포 청년들의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쓸 목적으로 조직된 문화운동 단체로써, 평안도, 황해도 출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기관지 “서우”를 발간하였으며, 1908년 1월에 ‘서북학회’로 발전하였다. 또한 한글의 연구, 보급을 위하여 조직된 ‘한글학회’가 알려져 있는데, 1908년 ‘국어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고 수차 명칭 변경을 거쳐 1949년 이후 ‘한글학회’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정착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1).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의 발전과 함께 학회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학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2011년 말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가 총 2,115개 인 것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인 수천 개의 학회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Korea, 2011).

우리나라 간호계의 첫 학회인 대한간호학회(현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출범하였고, 1971년 보건간호분과학회가 창립되어 지역사회분과학회라는 명칭을 거쳐 지역사회간호학회로 정착하였다. 2011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지역사회간호학회는 회원 수, 조직과 운영, 학술활동, 출판활동, 국제교류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를 정리할 기회가 없어서 40년의 세월을 겪으며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어떤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971년 창립 이후 지역사회간호학회의 변화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간의 발전과 성장을 나타내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1971년 창립된 지역사회간호학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차사료 및 기타 증거를 사용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기술하는 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간호학회 창립 당시와 이후 경험한 변화에 관한 문헌을 찾아 시간과 사건의 연계에 따라 구성하여 분석하며 그 의의를 밝히고, 문헌이 부족한 부분은 관계자 인터뷰

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2. 연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주요 관련 문헌으로 먼저 이차사료로는 대한간호학회 30년사, 대한간호협회 70년사 등의 단행본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각 간호교육기관의 역사에 관한 단행본,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간호학 교재 등을 참고하였다.

일차사료로는 대한간호, 간호사신문 등의 관계 기사, 지역사회간호학회 역대 학술대회 등의 자료집, 지역사회간호학회 금전출납부와 연도별 사업 보고 등의 내부 문서, 1989년 이후 발행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당대의 관련 단행본 등을 활용하였다

이차사료와 일차사료를 통한 자료수집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다가 관계자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의 지역사회간호학회 임원 중에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밝히고 면담 의사를 타진하여 이에 동의한 경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받거나 설명 받거나 의견을 구하는 점에 대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여건에 따라 이메일, 전화, 대면의 3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또는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횟수는 최소 2회에서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상의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조직과 운영, 학술활동, 출판활동 등으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후 시기적 특징에 따라 1971~1980년, 1981~1989년, 1990~1999년, 2000~2010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각 시기의 특징에 따라 ‘학회의 기반을 세우다’, ‘회원의 참여로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하다’,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학회를 이끌다’, ‘학문분야와 국가의 경계를 넘다’로 부제를 명명하였다.

연구결과

1. 1971~1980년; ‘학회의 기반을 세우다’

1)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창립되는데 직접적 역할을 한 것은 대한간호학회의 창립이었다. 1970년 4월 18일 대한간호협회 제38회 정기총회에서 간호학회 발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한간호학회가 발족하였다(Korean Society of Nursing Sci-

ence [KSNS, 2002]. 창립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에서는 학회의 역할을 “간호학술의 발전과 학구적인 연구에 관한 일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 학술대회 및 좌담회를 가지며 학회지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임원으로는 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분과학회장 1명,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다. 분과학회로는 간호행정학회, 내외과간호학회, 산소아과간호학회, 보건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등 5개 학회가 결정되었는데(Korean Nurses Association [KNA], 1997), 당시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반영한 것이었다(Cho, W., personal communication, July 6, 2011). 또한 간호학회 임원에 각 분과학회장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분과학회는 연1회 정기총회를 할 것도 명시하였다(KNA, 1997).

대한간호학회 창립 이듬해인 1971년 6월 25일 보건간호 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조원정 교수가 선출되어 1978년까지 역임하였다. 1979년에서 1980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이영자 교수가 보건간호 분과학회장을 역임하였다(KSNS, 2002; Kim, H.,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11, 2011; Yoon, S.,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16, 2011).

1970년대 보건간호분과학회의 일반회원은 대부분 대학에서 지역사회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으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다. 1979년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이 48개였는데 그 즈음 총회를 하면 약 3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회원의 총회 참석률은 매우 높았다(Cho, W., personal communication, July 6, 2011; Yoon, S.,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16, 2011). 보건간호분과학회는 연 1회의 총회를 정례화하여 1980년에는 제7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KSNS, 2002). 학회 운영은 대한간호학회로부터 기본사업비와 연회비의 일정비를 받아서 이루어졌지만(“Regulations of KSNA”, 1978), 간호학 교육자와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아 대한간호학회조차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다(Jung, Y., personal communication, July 11, 2011).

보건간호분과학회는 1976년 7월 5일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로 개칭되었다. 명칭 개정은 대한간호학회 분과학회 중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다(KNA, 1997).

2) 학술활동

보건간호분과학회는 창립 초기 자체 학술대회를 본격화하지 못했고, 대신 대한간호학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사회간호학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1976년 6월 4일 대한간호학

회 제6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의 주제를 “산업인의 보건관리”로 하였다(KSNS, 2002). 대한간호학회에서는 분과학회가 학술대회 개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979년부터 월례 학술집담회를 시작하고, 이를 각 분과학회에서 돌아가며 주최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분과학회는 1980년 6월 19일 제2회 월례 학술집담회를 주관하여 대한간호협회 강당에서 ‘가족건강의 이론적 근거’를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The Second Monthly Symposium”, 1980).

지역사회분과학회 자체 학술대회는 1980년 총회에서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 4월 21일 열린 제7회 정기총회가 그 자리였는데, “가족건강향상을 위한 연구동향”과 “부부조화도가 가족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KSNS, 2002).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에서는 정규 학술대회보다 이른 시기에 지면을 통하여 중요 이슈를 전체 간호계에 전하기 시작하였다. 간간이 지역사회간호학의 주요 이슈가 대한간호협회 기관지 “대한간호”를 통하여 발표되곤 했는데, 1975년부터 ‘보수교육’이라는 코너가 신설되어 각 분과학회에서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78년 대한간호 제17권 제3호에서 ‘지면보수교육-지역사회간호학편’으로 ‘관리의 기본개념’이 다루어졌는데 “건강관리의 체제와 간호행정”, “기획”, “조직화”, “지휘”, “관리” 등 5편의 글이 실렸다(Kim, Kim, Lee, Park, & Cho, 1978).

3) 출판사업

보건간호분과학회 설립 초기에는 자체 활동으로 단행본을 출판하거나 학회지를 발간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1974년 대한간호협회에서 “보건간호 실무지침”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는데, 지역사회분과학회 회원 신덕화, 박노예, 이선자를 담당위원으로 선정하여 진행했지만 저자를 ‘대한간호협회 간호업무부’로 하였다(Nursing Operation Department of the KNA, 1974). 이후 1980년 대한간호학회에서 출판된 ‘간호학 자습서-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 역시 김화중, 박신애, 이광옥, 정연강, 조원정 등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전공 교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대한간호학회 편저로 되어 있다(KSNS, 1980).

2. 1980~1989년; ‘회원 모두의 참여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하다’

1) 조직과 운영

1981년 회장단이 개편되어 정연강 중앙대학교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기타 임원으로 총무는 박신애 교수, 학술위원은 김화중 교수, 서기는 왕명자 교수, 회계는 김은희 교수가 맡아 이들이 1985년까지 학회를 이끌었다. 1896년에는 서울대학교 김화중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총무는 왕명자 교수, 학술위원은 박신애 교수, 서기는 김은희 교수, 회계는 김순례 교수가 맡아 1989년까지 학회를 이끌었다(KSNS, 2002).

1980년대에는 정기총회가 학회의 주요 사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중에는 대한간호학회 등 외부에 건의할 사항에 관한 의결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1985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분기별 학술집담회의 지역별 개최, 대한간호 지면보수교육의 사전계획, 분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사 국가고시의 의료법규문제를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에 통합시켜 줄 것을 대한간호학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KACHN]”, 1985).

1987년 3월 27일 대한간호학회 제16회 정기총회에서 분과명칭 삭제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는 지역사회간호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에서 수년에 걸쳐 ‘분과’라는 명칭을 삭제할 것을 대한간호학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Kim, H.,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11, 2011).

2) 학술활동

1980년대 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는 주제가 정해지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펼쳐지는 학술적 성격이 분명해졌다. 1981년 2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회 정기총회에서는 “일차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활동”의 주제강연이 있었다(KSNS, 2002). 이후 1980년대 주요 학술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학술대회가 하계와 동계 등 1년 2번 이상 정례화 되면서 관련 주요 이론과 이슈에 관한 논의를 이끌고 수렴하는 장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학술대회가 일회적 이슈 전달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의 결과물을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84년 1월 27과 28일 이틀에 걸쳐 속리산 허니문 호텔에서 열린 “지역사회 간호이론 및 교육모형”을 주제로 한 학술집담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사회간호 개념, 이론, 교재, 교육, 국시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토의가 이어지는 등(Con-

ference and General Meeting of the KACHN, 1984; Kim, 2010) 학술대회가 문제제기에서 문제 해결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자리잡아갔다.

학회 회원이 함께 참여하 문제제기에서 집단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이후 한층 더 발전하여, 1986년 3월 28일과 29일 1박 2일간 서울에서 열린 학술집담회에서는 ‘문제제기 및 필요성’ 주제강연에 이어 지역사회간호 실무 현장별 연구계획서 발표가 있었다. 즉, 우리나라 산업간호 분야, 학교간호 분야, 보건소 분야, 보건진료소 분야별로 연구 계획서 발표가 이루어진 후 참여 회원 모두 분야별로 나뉘어 그룹 토의에 들어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일정표를 설계하였다(Community Health Nurses Function Gradually Priceless, 1986). 이는 그해 6월 27일과 28일 1박 2일간 전남에서 ‘자료분석 및 문헌고찰’을 주제로 열린 학술집담회로 이어졌고, 이어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수안보에서 ‘통계기법’을 주제로 열린 학술집담회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이듬해 11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간 인천에서 열린 학술집담회에서 각 연구분야의 중간결과 발표로 이어지고(KSNS, 2002) 이 연구가 1988년 말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 실무현장인 산업장, 학교,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1989년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전체 지역사회간호학회원의 공동 연구결과로 실리게 된 것이다(Kim, 1989).

「대한간호」의 ‘지면보수교육’ 코너를 통한 학계 주요 이슈에 대한 대중적 논의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83년에는 지역사회 간호관리의 개념에 관하여 그 정의와 원칙, 주기능, 기획기능, 집행기능, 평가기능에 관한 글이 실렸으며(Jung, Kim, Nam, & Hong, 1983), 1985년에는 지역사회간호사, 가족간호사, 보건교사, 산업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에 관한 글이 실렸다(Kim, Cho, Park, & Yoon, 1985). 1987년에는 지역사회 간호과정에 관하여 그 이론과 개념들, 간호진단 및 계획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Kim, June, Shin, Park, & Kim, 1987). 1989년에는 2회 글이 실렸는데, 1호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보건간호 기능”,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현실과 산업간호 기능”, “위기이론을 근간으로 한 보건소 기능”(Kim, June, & Jung, 1989)이 실렸으며, 3호에서는 “일반체제이론”, “지역사회간호와 체계론적 조직이론”(Kim & Yoon, 1989)이 실렸다.

3) 출판 사업

(1) 공동 저서 간행

1987년 지역사회간호회 회원의 공동 참여로 저서를 간행하였다. 1987년 수문사에서 출판한 “지역사회 간호학(I) 보건학 강좌”는 “지역사회간호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에 앞서 보건학의 지식을 갖추도록 돕기 위하여 전국의 여러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들의 공동집필”로 나온 책이었다. 이 책의 대표저자는 황보선 부산대학교 교수, 대표 편집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화중 교수로 소개되었지만 글쓴이로 전국 57명의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를 소속 학교와 함께 열거하였다 (Hwang, 1987).

(2) 학회지 창설

1989년 2월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창간되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호에 실린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인력 분포 및 이들의 업무 분석” 연구보고서로써 “김화중 외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원들”이 저자로서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현장인 보건소, 보건진료소, 산업장, 학교간호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1986년에 시작되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1986년 2월에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분포와 업무분석”을 전국 차원에서 실시하고 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발간하여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연구는 “1988년 말까지 약 3년에 걸쳐서 63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1989년 2월에 간행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호에 담게 된 것이다(Kim, 1989). 논문은 보건간호편, 보건진료원편, 산업간호편, 학교간호편 등 4편으로 구별되었고, 먼저 보건간호 편에서는 “전국 보건소 간호인력의 분포와 보건사업 제공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우리나라 보건소 간호사의 보건사업 영역별 수행활동에 관한 조사연구”가 실렸으며, 보건진료원 편에서는 “전국 보건진료원 업무 분석에 관한 연구”가 실렸고, 산업간호 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의 인력분포와 산업간호 제공 실태에 관한 연구”가, 학교간호 편에서는 “전국 양호교사의 인력분포와 학교간호의 업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실렸다. 그뿐 아니라 각 편에서 지역별 연구결과를 구분하여 서울 지역, 경인 지역, 강원 지역, 충청 지역,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제주 지역 등으로 나누어 실음으로써 전국적 현황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지역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Kim & members of KACHN, 1989).

3. 1990~1999년;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학회를 이끌다’

1) 조직과 운영

1990년부터 지역사회간호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2년마다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선출되어 학회를 이끌게 되었다. 1990~1991년에는 황보선 부산대학교 교수를 회장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의 회원들이 임원을 하였고, 1992~1993년에는 김상순 경북대학교 교수를 회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회원들이, 1994~1995년에는 충남대학교 홍춘실 교수를 회장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 회원들이, 1996~1997년에는 김성실 한림대학교 교수를 회장으로 강원 지역 회원들이, 1998~1999년에는 정영숙 전북대학교 교수를 회장으로 전북 지역 회원들이 임원으로 학회를 이끌어 갔다. 단지 출판이사만 서울 지역에서 담당하였다(KSNS, 2002).

1995년 1월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칙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회장 제도의 신설과 감사의 수를 늘린 것이었다. 신설된 부회장은 “차기 회장 지역의 지역사회간호학 교수중 추대된 자로” 하여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처리”하면서 차기 학회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시기에 1명이던 감사를 2명으로 하여 학회의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업무집행상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KACHN, 1995).

2) 학술 사업

1990년대에는 하계와 동계 1년 2회의 학술대회가 정례화되었다. 주로 임원이 있는 지방에서 개최된 정기 학술대회는 지역사회간호 이론과 실무의 최신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지역사회간호이론과 관련된 주제로는 “간호모형”, “간호이론 개념 정립”, “질적 간호 연구방법”, “지역사회 간호진단”, “가족 간호 진단”, “건강증진” 등이, 실무의 최신 이슈와 관련된 주제로는 “가정간호”, “관련 법규”, “국가고시 문제”, “보수교육 패키지 개발”, “산업간호”, “보건소 기능”, “지역보건법 제정” 등이 다루어졌다. 그중 1997년 하계 학술대회는 최초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와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여 The 1st CAPE Community Health Nursing Workshop: Health Promotion in Hawaii가 7월 6일에서 13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렸다(KACHN, 2001b; KANS, 2002).

「대한간호」의 지면보수교육 코너를 통한 학계 주요 이슈에 대한 대중적 안내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91년에는 지역사회간호이론 개발에 관한 글이 실렸고(Cho & Kim, 1991), 1992년에는 우리나라 산업간호에 관한 글이 실렸으며(Kim, Cho, & Lee, 1992), 1993년에는 우리나라의 가정간

호사업을 종합병원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누어 살폈다(Kim, Cho, & Yoon, 1993). 1994년에는 “건강증진”이 실렸으며(Yoon & June, 1994) 1997년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법과 간호사의 역할”, “하와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제”를 게재하였고, 연이어 1998년에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학교보건간호와 건강증진”을 게재하는 등 연속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Kim & Yoo, 1998).

3) 출판 사업

(1) 단행본 출판

1990년대에는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원이 공동 참여하여 지역사회간호학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재, 문제집 등의 출판을 활발하였다. 1987년 수문사에서 초판을 낸 “지역사회간호학(I) 보건학 강좌”는 1992년 개정증보되면서 저자가 ‘지역사회간호학회 출판편집위원회’로 명기되어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성과를 분명히 하였고, 글쓴이에 전국 지역사회간호학 전공교수 및 연구원 88명의 이름과 소속이 소개되었다(Publication and Compilation Committee of KACHN, 1992). “보건학 강좌”는 이후로도 개정을 거듭하여 1998년 나온 제 3판에서는 저자가 113명으로 늘어나, 전국의 지역사회간호학 전공교수는 거의 모두 참여한 책이 되었다(Publication and Compilation Committee of KACHN, 1998).

1980년 대한간호학회 편저로 수문사에서 출판된 ‘간호학 자습서-지역사회간호학 편’은 간호학 전공 학생의 학업을 돕는 대표적인 문제집으로 자리 잡았으며, 1992년 4판부터 지역사회간호학회 편저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KACHN, 2005a).

1990년대에 독학에 의한 간호학위 취득이 가능해지자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지역사회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사회간호학회 편저로 김화중 등 전국 14명의 지역사회간호학 전공교수가 참여하여 “지역사회간호학”(KACHN, 1992)을 출판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율학습(VII) 지역사회간호학”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출판되었는데,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 37명의 회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Kim, 1997).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세계 수준의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학습목표에 기초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여 ‘국가고시대비 문제집’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그중 “국가고시대비 문제집(VI) 지역사회간호학”이 1999년 대한

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편으로 출판되었으며, 출제자로 전국의 회원 83명이 참여하였다(KSNS & KACHN, 1999).

(2) 학회지 정착

지역사회간호학회지는 1990년대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출판되고 투고규정이 제정 및 개정되면서 학회지로서 정착되어 나갔다. 창간 이듬해인 1990년에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호 “지역사회간호학연구 초록집”이 발간되었는데,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지역사회간호학 관련 논문을 보건소간호, 보건진료소간호, 학교간호, 산업간호 등 4가지 연구논문으로 나누고 각 105편, 42편, 98편, 56편 등 총 301편의 논문에 대한 초록을 실었다. 4개 분야별로 나눈 논문 초록을 발표 연도에 따라 소개함으로써 제목만 살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KACHN, 1990).

1992년에는 학회지가 발간되지 못하였으나, 1993년에는 학회지 출판을 재정비하여 연 2회 발간을 시작하였다. 1993년 1호와 2호에는 전국의 학회 회원이 산업장으로 다니면서 조사한 연구물인 산업장의 특성 및 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공동의 논문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 실태에 관한 공동 논문을 실었다(KACHN, 1993a, 1993c). 또한 투고규정을 시작하여 학회지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모든 수록 논문에 영문초록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여 학술지가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투고규정은 I. 원고 게재원칙 8항목, II. 원고 작성요령 8항목 등 두 부분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KACHN, 1993b).

4. 2000~2010년; ‘학문분야와 국가의 경계를 넘다’

1) 조직과 운영

2000년대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가며 지역사회간호학회 임원을 맡고 학회를 운영하였고, 서울에서 회장을 할 때에도 일부 임원은 지방에서 말씀으로써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학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0~2001년에는 회장 박신에 교수(경희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회원들이 학회를 이끌어갔고, 2002~2003년에는 회장 강혜영 교수(전남대)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회원들이, 2004~2005년에는 회장 윤순영 교수(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회원들이 학회를 이끌어갔다(KACHN, 2004b). 2006~2007년에는 회장 김순례 교수(가톨릭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대구, 대전 등 기타 지역 회원도 참여한 임원이 구성되었다(KACHN, 2006b). 2008~2009년에는 이전처럼

회장 김정남 교수(계명대)를 중심으로 대구의 회원들이 임원을 구성하여 학회를 이끌었으나(KACHN, 2008), 2010~2011년에는 왕명자 교수(경희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충남, 부산 지역 회원도 참여한 임원이 구성되었다(KACHN, 2010b)

2000년대 이후 학회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회 영문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어 2005년 4월부터 학회 영문 명칭을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으로 하였고,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으로 하였다(KACHN, 2005b).

2000년대 지역사회간호학회 운영의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는 회원 확보였다. 2000년에는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이 112개, 석사 배출 교육기관이 19개, 박사 배출 교육기관이 11개가 될 정도로 간호교육과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KNA, 2007). 이에 따라 회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선정되려면 회원수를 급하게 늘려야 했다. 그동안 간호학계의 일반적인 학회 등록 방법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회원 학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국간호과학회 회원이 7개 회원학회 중에 1개 학회의 회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7개 회원학회 모두 회원 확보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회원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Kim, 2005)하기도 하고, 회원 배가를 위한 ‘1인 1회원 늘리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한국간호과학회에서는 1인 1 회원학회의 원칙을 수정하여 회원 1인이 2개 회원학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간호학회와 한국간호과학회의 노력의 결과 2010년 말 현재 지역사회간호학회 정회원수는 418명이며, 그중 평생회원이 365명, 연회원이 53명으로 대부분 평생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KACHN, 2010d).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학회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시작하였다. 학회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1년 6월이었고, 주소는 <http://community.nursing.web.riss4u.net>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학회의 기본 정보와 최신 소식을 싣고 질의응답이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KACHN, 2001b). 학회에서는 이후로도 홈페이지가 여러 정보와 논의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기

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3년 학회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면서 주소가 www.kchn.or.kr로 변경되었고, 여러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4년에는 홈페이지에 좀더 다양한 학회 관련 소식과 관련자료 등을 올리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문을 수록하게 되어 회원들이 손쉽게 학회지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의 편의와 학회지 제작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투고가 이루어지게 하였다(Kim, 2004). 2005년 지역사회간호학회 학회 홈페이지가 신규 제작되었지만 기존의 주소 <http://kchn.or.kr>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Kim, 2005).

2006년 12월 14일 11년만에 학회 회칙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당시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실제 운영에 맞도록 하고, 둘째, 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개정 과정의 투명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개정하기 전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주간의 공고 기간을 두었고, 총회를 통하여 회칙 변경이 결정되었다. 개정된 회칙 내용 중에 학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 변경 및 확대는 특히 의미가 큰 것이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늘어나는 국제교류를 담당할 임원을 확보하고, 지방 회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관련 학회의 수용을 위하여 임원의 수와 종류를 늘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원이 회장 및 부회장과 6명의 이사, 그리고 2명의 감사 등 총 10명에서 확장되어 기획홍보이사 1명, 국제교류이사 1명, 지역이사 약간명, 지역사회 관련학회 대표이사 약간 명이 추가되었고 추가된 이사의 직무가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학회 회원이 증가하여 총회에서 재적인원 1/3 이상의 득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회 회계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KACHN, 2006a).

회칙 변경에 따라 첫 기획홍보이사와 첫 국제교류이사가 임명되었으며, 지역대표이사로는 강원 지역, 광주전남제주 지역, 대전충남 지역, 전주전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의 이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한국산업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관련 학회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 관련 학회의 회장과 각 지역대표가 지역사회간호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됨으로써 지역사회간호학회는 전국적으로나 학문 분야별로나 체계적인 조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지역사회간호학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Jung, 2007). 2008년에는 지역이사를 더욱 확대하여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이 추가되었으며(KACHN, 2008), 2010년에는 지역대표이사를 이전의 7개 지역에서 14개 지역으로 늘려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강원,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에서 각 지역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KACHN, 2010b).

2) 학술활동

(1) 주요 학술행사

2000년대에는 관련 학회나 협회와 공동 주최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학술적 논의의 장을 펼치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 첫 번째 행사는 2003년 7월 11일 보건교사사회와 공동으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관에서 개최한 ‘보건교과 개발 및 교육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였다. 이는 학교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던 보건교과 및 보건교사로의 인정이 실현되어 2002년 초중등 보건교과의 인정도서가 승인되고 고등학교용 보건교과서가 개정되며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칭되자, 학회 총회에서 보건교사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통일된 보건교사 교육과정 및 학교보건실습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결정(Kim, 2002)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때 2002학년도부터 적용된 보건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습시간 및 이론 과목 이수 학점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보건교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Han, 2003). 보건교사와 보건교과의 장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학회의 노력은 이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04년 10월 2일에는 보건교사 임용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현행 보건교사의 임용 기준 및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였다(Yoo, 2004).

2004년 5월 11일에는 ‘제1회 지역사회간호, 보건간호, 가정간호 연합학술대회’가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와 방문 ‘가정간호’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위 3개 학회 뿐 아니라 대한간호협회와 가정간호사회 등 5개 학회 및 단체가 공동주최한 행사로써, 2003년 전문간호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가정간호사업이 확대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구체화 하는 데에 발맞춰 이루어진 것이었다(Yoo, 2004). 첫 연합 학술대회에 이어 11월에는 지역, 산업, 보건간호학회가 같은 장소에서 하루씩 연 3일간 학회를 개최함으로써 각 학회의 관심사의 연결성이 강조될 수 있었고, 2005년에는 보건간호학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간호 실무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연합 학술대회를 주최하였

다(Kim, 2005).

2006년에는 지역, 보건, 가정간호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제2차 연합 학술대회’를 주최하였다. 주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었다(Kim, 2007). 이러한 지역사회 관련 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주최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각 학회의 영역을 넘어서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2010년에는 농촌간호학회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간호개념, 실무, 교육에 관하여 공동의 논의를 전개하는 등(KACHN, 2010c) 분야 학회를 아우르고 각 학회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역사회간호학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 국제학술교류

2000년대 지역사회간호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가 한층 활발해져서 국제적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시작되었고 제5회 국제지역사회간호학술대회를 유치하였다.

2007년 서울에서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윤순영 서울대 교수와 가나가와 센세이 동경대 교수의 교류에서 시작되어(Yoon, S.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16, 2011) 2005년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지역사회간호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ICCHNR])에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를 2007년 한국에서 시작하여 4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Kim, 2008). 이후 김순례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과 김정남 부회장이 일본을 왕래하며 준비를 진행하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제 교류이사를 선임하여 학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총무분과, 학술분과, 홍보분과, 재무분과 등 4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학술대회 준비를 하였고 한국산업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에서도 성공적인 학회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Jung, 2007).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제1회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2일에는 국내 지역사회 기관 견학이 이루어졌으며, 23일에는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사회간호의 새 비전(New Vis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for Aging Era)’을 주제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가나가와 전 지역사회간호학회장이 주제 강연을 하였으며, 김순례 지역사회간호학회장은 “이번 학

술대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사회간호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설정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사회간호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학술대회를 평가하였다(The First Korea-Japan Community Health Nursing Conference, 2007). 첫 한일 학술대회에 대한 양국의 반응도 열렬하여 일본회원 104명과 한국회원 167명 등 총 271명이 등록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간호학부·대학원 학생이 참석하여 학문의 국제화와 다양화에 필요한 기량을 학습하는 유익한 학문의 장을 펼쳤다(Kim, 2007). 이 학술대회에서 일본 간호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서 간호학문이 기여하는 범위와 방법 및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새로이 출범하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Sung, 2007).

한편 2005년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3차 ICCHNR에는 전 세계 27개국 500여명의 지역사회간호학자 및 실무 간호사들이 모여 지역사회간호 교육 및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도 여러 이사와 회원이 참여하여 국제 지역사회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지역사회간호학 연구와 학회의 위상을 알렸으며, 이때 2013년에 개최되는 제5회 ICCHNR의 한국 유치권을 제안 받았다. 2007년 지역사회간호학회 총회에서 제5회 ICCHNR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 결의되었고(Kim, 2008) 2009년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8월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개최된 제 4차 ICCHNR에 약 2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한국 지역사회간호학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5회 ICCHNR 유치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주최측과 관련 회의를 거듭하였다(KACHN, 2009b). 그 결과 2013년에 개최되는 제5회 ICCHNR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 결정되었다(Wang, 2010).

제5회 ICCHNR의 주최가 결정되면서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그 준비에 서둘렀다. 2010년에만도 4차례 준비모임을 개최하였고, 45명의 준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제4회 ICCHNR이 참가자 부족 등으로 적자로 기록되고 세계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ICCHNR 본부에서는 2010년 공문을 통하여 제5회 ICCHNR을 2년 연기하여 2015년에 개최하자고 통고하였다.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도 이를 결정하여, 제5회 ICCHNR은 2015년 서울에서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Life Spa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Wang, 2010).

3) 출판활동

(1) 교재 발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전국 간호학 교수 워크숍을 통하여 ‘2000 간호학 학습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신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간호지식과 기술수준을 간호학 국가고사 과목 별로 기술한 것이었다(KNA, 2000). 개정된 학습목표에 따라 2000년 간호사 국가고사 대비 문제집 ‘지역사회간호학’이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으며, 이후로도 개정증보를 거듭하였다(Park, 2002). 수문사에서 지역사회간호학회 편지로 출판되는 ‘간호학 자습서-지역사회간호학 편’ 역시 판을 거듭하며(1997년 5판, 2000년 6판, 2005년 6판 수정판 등)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ACHN, 2005a).

(2) 학회지 출간

2000년대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국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지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 선정에 이어 등재지에 선정될 수 있었다. 학회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2001년 박신애 학회장은 “(우리의 관심사요, 고민이요, 연구 과제는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떻게 하면 간호연구와 교육 및 실무를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학술지가(중략) 논문의 양과 질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한간호학회지와 병행하여 논문심사 기준 강화, 발행권수 증간, 학회지 투고요령 등을 국제화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Park, 2001)라고 표현하였다.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첫째는 회원수 300명 이상이었으며 이는 국내 간호학계의 발전과 한국간호과학회의 분과학회 중복 등록 인정으로 해결되었다. 둘째는 게재 요청한 논문의 탈락률을 20% 이상으로 해야 하는 점이었는데, 이는 간호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투고 논문이 늘어나면서 해결되었다. 그 다음은 발행 권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 2회 발행되고 있던 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2001년에는 연 3회로 증간시켰으며, 2002년부터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 발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학회 등의 워십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Kim, 2002).

그 외에 지역사회간호학회는 수차례 걸쳐 투고규정을 개정

하여 게재 논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투고요령 국제화를 이루었다. 2001년 6월에는 투고규정을 18년 만에 처음 개정했는데, 개정된 투고규정은 투고 자격, 게재원고의 내용, 논문게재 과정, 학회지 게재요령, 논문의 구성, 문헌의 인용, 참고문헌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학회 투고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한층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저작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자가 점검 사항 및 저작권이양 동의서 제출이 추가되며 각 양식 역시 추가되었다(KACHN, 2001a). 2004년에는 3월, 6월, 9월 등 3회에 걸쳐 투고규정을 개정했는데, 참고문헌 표기 방식을 국제적 경향에 맞추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중 6월 개정 때에는 출판위원회 규정,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정과 절차,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논문심사 절차, 논문 심사결과 보고, 3가지 종류의 논문심사 평가지까지 추가되어 논문 투고 뿐 아니라 이후 심사가 의뢰되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이 게재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KACHN, 2004a). 2007년에는 연구 윤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투고규정에 윤리규정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었으며(KACHN, 2007), 2009년에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심사시스템에 따라 투고규정을 개정하였고(KACHN, 2009), 2010년에는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대한 재투고 기간 제한과 접수 논문 심사료 신설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KACHN, 2010a). 또한 2009년 3월부터 학회지의 표지, 내지 및 별책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종합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에서는 2005년 등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서류를 학술진흥재단에 접수하였고, 2005년 12월 선정 통보를 받았다. 간호계 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은 1999년 대한간호학회지에 이어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5번째로 등재후보 학술지가 된 것이었다(Continuous Recognition of Excellency of Journals of Nursing Science, 2006). 지역사회간호학회지는 이후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8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선정되었다(Journals of Nursing Science High as Excellence Journals, 2007).

논 의

20세기 들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은 1960년대 간호교육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학회 창립

의 논의가 이어져 1970년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었고, 1971년 보건간호분과학회를 비롯한 5개 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KNA, 1997). 학회를 기본 성격에 따라 크게 대표학회, 대학학회, 지역학회, 갈래학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대표학회와 회원학회의 성격을 띠는 갈래 또는 분과학회의 경우를 보면 1955년 중국학회가 설립되고 이후 여러 관련학회가 설립된 경우 등도 있고(Kim, 2009), 1949년 창립된 대한예방의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의과학 학회가 설립된 이후 1966년 34개의 분과학회를 통괄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회가 창립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대한간호학회와 분과학회처럼 대표학회의 출발부터 분과학회 설립을 전제로 한 경우는 드물다. 대한간호학회의 5개 분과학회는 당시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이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신경정신과간호학, 간호사회학, 보건간호학 및 보건약학관계법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The Ministry of Legislation, 1973)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간호학회의 출발부터 간호교육과 그 중요 이정표인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시사한다. 보건간호분과학회는 연 1회의 총회를 정례화하고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면서 학회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 총회에서 논문 발표를 함으로써 학술대회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1976년 보건간호분과학회 명칭이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로 변경된 것은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사회'가 학회 명칭에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한국농촌의학회가 2005년에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 그리고 1995년 창립한 대한 지역사회영양학회와 2001년 창립한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등에 불과하다. 학회 명칭 변경이 시대를 앞선 것이었음은 우리나라 간호계에서 '지역사회간호'라는 명칭이 교과목이나 교재에서 사용된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도 확인이 된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1986)에서, 그리고 1977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보건간호학 과목이 지역사회간호학으로 변경되었고(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99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1972년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교과목이 시작되었으나, 보건간호학이 지역사회간호학으로 명칭 변경된 것은 1985년이였다(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당시 간호학계 교재의 명칭은 '보건간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학 단행본에 지역사회간호학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78년 출판된 이경식 저 "일차 보건의료와 지역사회간호학(Primary Health Care and Com-

munity Health Nursing)” (Lee, 1978)이 처음이다. 따라서 학회 명칭을 보건간호학회에서 지역사회간호학회로 변경한 것은,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학회 명칭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학계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83년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역시 보건간호학에서 지역사회간호학으로 명칭 변경되었다(The Ministry of Legislation, 1983).

1980년대에 지역사회간호학회는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주요 사안을 함께 논의하여 합의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민주적 운영 방식을 정착시켰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정기 학술대회를 정례화 했을 뿐 아니라, 전 회원이 수 년간 참여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사업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고, 1989년에는 학회지를 창설하여 그 연구결과를 실음으로써 그 어느 학회지보다 회원의 결집된 의식과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내었다. 이와 같이 전 회원이 수 년간 참여하여 이룬 연구결과를 학회지 창간호를 통하여 발표한 지역사회간호학회의 독특하고 강력한 역동은 이후 회원이 함께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내는 ‘한국 지역사회간호학’ 경향의 기반이 되었고,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원의 공동 작업으로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회원 모두 적극 참여하여 함께 학계의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학회의 운영은 회원의 학회에 대한 몰입도를 상승시켰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창간은 지역사회간호학 분야의 연구업적을 교류할 고유하고 정규적 매체가 생겼다는 학회지 공통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뛰어난 점에도 불구하고 학회지 창간 당시에는 오늘날의 학회지가 갖추는 엄격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아서 영문 초록은 논문에 따라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으며, 투고규정은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1987년에는 ‘분과학회’를 명칭에서 삭제함으로써 대한간호학회 분야별 학회이자 자체 완결성을 띤 독립된 학회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학술대회, 워크숍, 총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 회원의 학회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고 기여도가 높아지자 지방에서 돌아가며 임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Kim, H. personal communication, August 11, 2011). 또한 1990년 당시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은 62개인데 그중 서울에 위치한 것이 14개로 1/4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KNA, 2007), 1990년대 10년간 간호학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돌아가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맡아서 학회를 이끌어 갔다. 이는 그 지방 회원의 학회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나 인터넷과 같

은 매체가 발달하지 않아 전화로 통화하거나 함께 모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므로 학회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다(Yoon, S.,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16, 2011). 따라서 학회지의 간행을 담당하는 출판이사와 출판사업은 계속 서울 지역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1990년대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원이 함께 연구하고 결과를 내는 풍토는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여 학회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재도 회원 공동의 참여로 출판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지역사회간호학회에는 지역과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서 학회가 운영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사회간호학회와 가정간호학회, 산업간호학회, 보건교사회, 농촌간호학회 등 분야 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를 통하여 공유하는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학회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학회를 널리 홍보하고 학회와 회원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학회지 투고와 심사 등도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학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간호학회의 투고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였으며 연구 윤리 기준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 선정에 이어 등재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역량의 강화에 따라 2007년부터 4년마다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가며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를 주최하고 있고, 2015년 열리는 제5차 국제간호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결 론

1971년 창립 이후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사회간호학회는 한국 간호교육과 학계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여 회원 수 약 420명의 규모와 임원 약 25명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이론 뿐 아니라 실무와 교육을 아우르고 주도하는 연 수차의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 활발한 학술행사, 양적으로는 연 4회 발행되며 질적으로는 학진등재지에 선정된 학회지 간행, 회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재와 연구성과의 간행 등은 지역사회간호학회의 파워와 역동성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움직임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어 정규적으로 한일 지역사회간호학회를 개최하고 있고, 2015년 ICCHNR을 유치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성장은 물론 한국 간호학계의 양적, 질적 발전에 일차적으로 기반하고 있지만, 그 어느 학회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회원들의 참여와 기여에 가장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은 학회를 통하여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실무자로서의 성장을 꿈꾸었으며 열성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학회의 성장과 연구자로서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상대적으로 소수의 회원이 학자로서의 관심을 공유하며 가족 같은 동료애에 기반하여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약 420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회원들은 훨씬 다양한 관심과 위치에서 학회에 발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간호학회는 이들 많은 회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에 귀기울이고 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회원을 학문적으로 동기화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자들이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장으로써 학문 발전하는 기여하는 일반 학회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과 실무도 아울러야 하는 간호학의 특성에 따라 한층 다양한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사회간호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세계화와 한국이라는 지역에 대한 탐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제화 시대에 한국 지역사회간호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써 회원과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이는 지역사회간호학회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과 학회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요구와 열정을 이끌어내고 담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는 회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 간호학계의 다양한 학문, 실무, 교육 영역에서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의 길라잡이를 추구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College of Nursing, Ewha Women's University. (1986). *History of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Ninety years of nursing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996). *History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Kim, K. (2009). Reflection and groping-history and role of academie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4, 151-175.
-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7). *Seventy years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7). *Annals of statistics in nursing*.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02). *Thirty years of history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Press.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Korea. (2011). *Program guide*. Retrieved January 20, 2012, from www.nrf-re.kr/htm/kr/business/business-06-02-08-02-01-01-3465.htm#a.
-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dictionary. (n.d.). Retrieved December 01, 2011,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dic.jsp>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December 01, 2011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The Earliest Academies. (1999, February 1). *Doctors Times*, p. 2.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8). *Korean Dictionary*. Retrieved March 04, 2011 from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41727600&query1=A041727600>

일차사료

- Cho, W., & Kim, H. (1991).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30(3), 30-33.
- Community Health Nurses Function Gradually Priceless. (1986, April 3).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1.
- Conference and General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4, February 23).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2.
- Continuous Recognition of Excellency of Journals of Nursing Science. (2006, February 8).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1.
- Han, M. (2003).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Community Nursing*, 14(2), 1.
- Hwang, B. (1987). *Community health nursing (I) public health nursing*. Seoul: Soomoonsa.
- Journals of Nursing Science High as Excellent Journals. (2007, January 11).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1.
- Jung, H. (2007).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 1.
- Jung, Y., Kim, S., Nam, S., & Hong, C. (1983).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 22(4), 26-34.
- Kim, C. (2005).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1), 1.
- Kim, H. (1989). The address for the initial numb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1), 1.
- Kim, H. (2002).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1.
- Kim, H. (2004).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3), 1.
- Kim, H. (2010). *A nurse who became a minister*. Koksung: River Valley Press.
- Kim, H., & Members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9). The analysis of distribution and service of community health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 2-99.
- Kim, H., Cho, W., & Lee, J. (1992).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31(3), 47-52.
- Kim, H., Cho, W., & Yoon, S. (1993).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32(4), 53-55.
- Kim, H., Cho, W., Park, S., & Yoon, S. (1985).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24(4), 32-38.
- Kim, H., June, K., & Jung, Y. (1989).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28(1), 42-47.
- Kim, H., June, K., Shin, H., Park, S., & Kim, S. (1987).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26(4), 38-43.
- Kim, J. (2007).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1.
- Kim, J. (2008).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1), 1.
- Kim, M., Kim, H., Lee, K., Park, S., & Cho, W. (1978).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17(3), 52-55.
- Kim, S. (1997). *Autonomous learning by computer program (VII)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Kim, S., & Yoo, J. (1998).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37(5), 52-56.
- Kim, Y., & Yoon, S. (1989).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28(3), 42-27.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0). Abstract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 1-99.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2). *Clinical nursing (IV)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3a).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health car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4(1), 1-83.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3b).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4(1), 84.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3c). The actual conditions of recognition about their health among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4(2), 1-83.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5). The regulations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6(1), 112.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1a).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2(1), 547-550.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1b, June). *The Korea community nurses academic society*. Retrieved November 8, 2011, from <http://communitynursing.web.riss4u.net>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4a).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2), 332-335.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4b). The board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 ing, 15(2), 337.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5a). *Nursing science self-taught-community health nursing*. (6th ed.) Seoul: Soomoonsa.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5b). The back co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1), 125.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6a). The regulations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4), 598-599.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6b). The board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4), 600.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7).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681-685.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8). The board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1), 231.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9a).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 112-114.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9b). *2009 busines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a). Instruction to auth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225-229.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b). The board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231.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c). *2010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ummer conference booklet*. Retrieved October 20, 2011, from www.kchn.or.kr/board/pds-list.htm?mode=view&bD-Code=pds&nid=28&page=d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d). *2010 busines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0). *Learning objectives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Eds.). (1980). *Nursing science self-taught-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Soomoonsa.
-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9). *Exercise book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VI)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Korea Nurses Association Press
- Lee, K. (1978). *Primary health care and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Nursing Operation Department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1974). *Public health nursing manual*.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s.
- Park, I. (2002).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4), 1.
- Park, S. (2001).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2(1), 1.
- Publication and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2). *Lectures of public health nursing (2nd ed.)*. Seoul: Soomoonsa.
- Publication and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98). *Lectures of public health nursing (3th ed.)*. Seoul: Soomoonsa.
- Regulations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1978, May 25).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2.
- Sung, K. (2007).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3), 1.
- The first Korea-Japan Community Health Nursing Conference. (2007, November 7).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1.
- The Ministry of Legislation. (1973). *Regulations for medical law*. Retrieved July 21, 2011, from <http://law.go.kr/IsBdyPrint.do>
- The Ministry of Legislation. (1983). *Rules for medical law*. Retrieved July 21, 2011, from <http://law.go.kr/IsBdyPrint.do>
-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85, February 14).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2.
- The Second Monthly Symposium. (1980, June 26).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p. 1.
- Wang, M. (2010).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1.
- Yoo, H. (2004). The beginning comme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5(4), 1.
- Yoon, S., & June, K. (1994). Maintenance education through the magazine. *Korean Nurses*, 33(5), 34-45.